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

ZOOM IN + H

SECTION 2 OF THE HWAYANG-
JEOKGEUM ROAD

섬과 섬,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바닷길을 열다

The Yeosu region, Jeollanam-do, is dotted with 365 picturesque islands. This spring, a new road across the sea has been opened here. The construction of the new road connecting four islands between Yeosu and Goheung enables a decrease in travel time to 30 minutes from 80 minutes by land. The new road is expected to make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ving more convenient and to develop the local economy. Hyundai E&C was in charge of Section 2 of the Hwayang-Jeokgeum road. The Section 2 was designed to construct a 2.047-kilometer road including an 854-meter cable-stayed bridge and a 1.2-kilometer access road.

▶ Continued on page 6, 7

365개의 보석 같은 섬을 간직한 전라남도 여수. 봄 내음 가득한 여수에 최근 바닷길이 열렸다. 여수와 고흥 사이에 떠있는 조발도·둔병도·낭도·적금도에 다리를 놓아 하나의 길로 엮은 것. 과거 육로를 이용하면 80분가량 소요되던 시간이 새로 개통된 도로를 이용하면 30분으로 단축된다. 통칭 '백리섬섬길'이라고 불리는 이 바닷길의 탄생과 함께 주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진 것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전체 프로젝트 중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의 공사를 맡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조발도와 화양면을 가로지르는 2공구는 사장교 854m와 접속도로 1.2km(총연장 2.047km)를 포함한다. 특히 화양대교(가칭 조화대교)는 주경간 500m의 콘크리트 사장교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봄이 만개하는 4월, 쪽빛 머금은 바다 위를 내달리면 아름다운 해양 비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 관련기사 6, 7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명품 해안 루트의 탄생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 전남의 아름다운 해양 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예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화양-적금 간 도로가 최근 준공한 것. 이로써 여수시 화양면과 고흥군 영남면을 오갈 수 있는 국도 77호선이 일제히 개통했다. 이동시간도 80분에서 30분으로 줄었다. 우리 회사는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를 맡으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글=박현희 / 현장리porter=최태아 대리



New road across the sea

The Hwayang-Jeokgeum road construction project was divided into four sections. As excellent design and economic feasibility were considered a key to winning the project, competition was fierce among builders to receive the order for Section 2 including bridge construction. A consortium led by Hyundai E&C was successfully awarded the deal to be in charge of Section 2 by suggesting the eye-catching tower design and the outstanding construction capability to minimize damage to the environment.

The Section 2 of the Hwayang-Jeokgeum road construction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n 854-meter cable-stayed bridge and a 1.2-kilometer access road. What is notable is that the Hwayang Bridge (tentatively named the Johwa Bridge) with a central span of 500 meters between two pylons is considered Korea's longest concrete cable-stayed bridge completed.

In addition, the builder applied a wide range of technologies to build 170-meter-high towers. It chose parallel wire stands (PWS), connected to the towers, to reduce wind load. The auto climbing system (ACS) was introduced to construct high pylons. The ACS enabled the automatic lifting of formworks through the use of the hydraulic system without additional dismantlement and reinstallation, contributing to increasing work efficiency and managing construction quality in an easier way.

The biggest challenge to the construction work conducted high in the air and the marine construction involving the handling of heavy materials was irregular weather conditions. The construction site had to fight against frequent fog, heaving seas and strong wind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nstruction site committed efforts to securing safety for its workers by monitoring wind velocity in real time.

The Section 2 project was commenced in December 2011 and successfully completed in February this yea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the new road allows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island to go to the land without using a ship around the clock, and the Hwayang Bridge, which has emerged as a new landmark in the southern coast, is expected to help vitalize the local economy as a tourist attraction.



개의 주탑 사이 거리) 500m인 화양대교(가칭 조화대교)는 준공한 콘크리트 사장교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시공 중인 것을 포함해도 우리 회사가 짓고 있는 고덕대교(주경간 540m) 다음이다. 세계적 인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자재와 인력 스케일도 남다르다. 준공까지 사용된 자재의 누적량은 레미콘 6만8781㎡, 철근 9329t, 사장교(PWS) 케이블 1264t, PC(Prestressed Concrete) 강재 315t, 아스콘 1만132t가량, 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약 50만9000명에 달한다.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바깥활동을 하고 싶지만, 대중교통을 타거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요즘이다. 행동반경이 좁아졌다고 마음의 반경까지 좁힐 필요는 없는 법.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확행'(일상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란 뜻의 신조어)을 누리길 바란다. 다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이곳을 매모해 두는 것이 어떨까. 전남 여수의 화양-적금 간 도로를 거쳐 고흥으로 건너가는 드라이브 관광명소 '백리섬섬길'이다. 39.1km인 백리섬섬길의 하이라이프는 2월 28일 전면 개통한 화양-적금 구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에서 화정면 조발리까지 17km를 잇는 국도 77호선으로 여수 지역 4개 섬(조발도·둔병도·남도·적금도)을 5개의 해상교량으로 이었다.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는 1공구 화양면 안포리~장수리, 2공구 화양면 장수리~화정면 조발리, 3공구 화정면 조발리~남도리, 4공구 화정면 남도리~적금리 등 공사 구간에 따라 4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입찰 당시 설계와 가격 절수를 평가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발주했다. 우수한 설계와 더불어 경제적 확보가 수주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참여한 2공구에는 전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교량 건설이 포함돼 있어 경쟁이 특히 치열했다. 우리 회사(지분율 55%)는 한화건설(15%), 대보건설(15%), 대우조선해양건설(10%), 해상종합건설(5%)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는 수려한 주탑 디자인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교량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남다른 스케일의 인프라 프로젝트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는 사장교 854m와 접속도로 1.2km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주경간(두

1, 2월 28일 준공한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의 화양대교 전경. 화양대교는 주경간 500m의 국내 최대 규모 콘크리트 사장교다. 3 해상 크레인으로 거처식 콘크리트 우물통을 설치하고 있다. 4 석양이 아름답게 칠 무렵에도 현장의 시계는 돌아갔다. 5 근로자들이 상부 교면을 포장하고 있다. 6 높이 170m의 주탑 시공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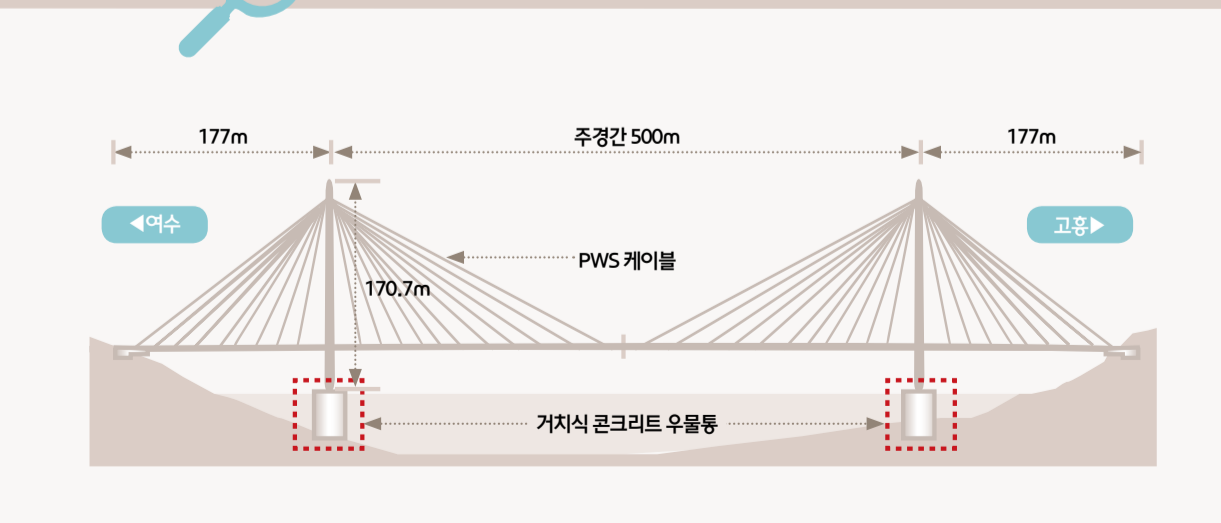
를 이용하면 별도의 해체 및 재설치가 필요 없이 유압장치에 의해 거푸집이 자동으로 상승해 작업 효율이 높고, 품질관리가 용이하다.

현대건설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성공 준공

아파트 60층이 넘는 높이에서의 작업, 중량물 인양이 잦은 해상공사에서 최대의 적은 불규칙한 기상 상황이다. 현장에는 잦은 안개와 심한 너울, 강한 돌풍이 수시로 들이닥쳤다. 이에 현장 직원들은 현장 풍속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날씨로 인한 공정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휴일 및 야간 작업을 진행했으며, 시공사 전 직원 역시 불철주야 현장을 지키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2011년 12월 착공한 현장은 ▶2013년 소형 항만시설인 물양장(Lighters Wharf) 축소 ▶2015년 화양대교 우물통 기초 공사 완료 ▶2017년 화양대교 주탑 공사 완료 ▶2019년 화양대교 상부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2월 28일 준공했다. 현장에 인접해 있는 조발도 지역 주민들은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24시간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향후 화양대교는 삼-해양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성공적으로 탄생시킨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 현장 직원들은 "해상 기상 제약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계획된 공기 내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사장교에서 근무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정산 작업까지 멋지게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3000일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현대 특유의 도전정신과 협동력을 바탕으로 완공해낸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은 우리 회사 대표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주경간 500m! 국내 최대 규모 콘크리트 사장교 '화양대교'



Great people interview

"변화무쌍한 날씨 이겨내고 준공... 베테랑 현장 직원들 덕분"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 직원들이 화양대교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57년 한강인도교를 시작으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수한 교량 기술력을 쌓은 현대건설. 그 역사를 화양-적금 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이 있고 있다. 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낸 현장 직원들과의 인터뷰.

Q 자기소개 바랍니다.

이정수 현장소장(이영소장) 우리 현장에는 2012년 7월 공무임장으로 부임해 2017년 1월 현장소장을 맡았습니다. 1995년 7월에 입사한 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영산대교-운남대교-거금대교 등 해상에서 시공하는 특수교량 현장에서만 근무했는데, 개인적으로 네 번째 경험하는 해상교량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쳐 감개무량합니다.

최영수 공사팀장(이영소장) 저 역시 운 좋게 울산대교, 인도 참발강 사장교 등 특수교량 현장에 서민 있었습니. 우리 현장에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근무했고 지금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현장에서 고덕대교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설계팀장(이영소장) 2016년 9월 부임해 주로 시공 엔지니어링과 설계 관리를 하며 대외 공무 및 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교원 공무팀장(이영소장) 저는 2019년 9월 공무임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과거 여러 현장에 몸담았지만 대부분 잠실대교, 서울-춘천 고속도로, 금빛노을교 등 도로 공사였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준공 이후 대비의 청산 업무를 맡았었는데,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Q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상 공사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이재호 일례로 2019년 7-10월에만 크고 작은 태풍 6개가 현장에 들이닥쳤어요. 당시 현장 전 직원이 밤을 지새우며 노심초사했죠. 사건의 철저한 대응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현장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공정을 따라잡고자 야간작업도 불사했는데,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직원들도 주말-휴일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며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영수 콘크리트 운반과 타설에도 어려움이 따랐어요. 공사명은 '도로건설'이었지만, 실제 공사 내용은 콘크리트 사장교 교량 건설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해상 날씨와 싸워야 했죠. 너울 때문에 레미콘을 해상 버지로 운반하지 못해 타설 일정을 두 번 연속 취소한단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이동 배(통선) 운행이 끊겨 몇 시간 동안 추위를 견디며 주탑에서 대기한 것은 잊지 못할 해피메모였습니다.

Q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의 일몰로서 자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교원 화양-적금 도로건설 프로젝트는 총 4개 공구로 발주됐어요. 2공구는 모든 공사 구간 중 가장 짧지만, 가장 난도가 높습니. 우리 회사는 발주처와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사무실 내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시공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최영수 처음 공정표를 작성할 때만 해도 계약 공기 내 준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직원 모두가 공정 지연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협력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결과 착에 준공할 수 있었습니. 이런 노력! '국내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사장교'라는 타이틀을 더 빛내는 것 아닐까요?

이재호 상에서만 70년을 사신 할머니께서 '다리로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갈 수 있디니 꿈만 같고, 이제는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있어 좋다고 하시는 인터뷰를 보며 건설 기술자로 큰 보람을 느꼈습니.

현장소장 8년의 긴 공사기간 동안 공정지원, 원가 상승, 협력업체 문제, 악성 민원 등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준공하고 나니 힘들었던 지난 시간은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만 기억되네요(웃음). 여러 현안으로 밤을 지새우며 동고동락했던 이창업 전 공무팀장, 최영수 전 공사팀장을 비롯한 모든 현장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2공구 파이팅!"을 외치려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슬기롭게 '화' 다스리는 방법

마음산책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동료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일이다. 가슴속에 쌓여 있을 '화'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글=박상미 마음치유 전문가

특하면 화내고 짜증 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힘들고 괴롭다. 왜 내 주변에만 이런 진상들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사실은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열 받을 필요 없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평소 화가 많다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면 해결 방법은 사실 없다. 그나마 직장 동료라면 '월급'이라는 긍정의 대가로 감정희생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월급과 같은 수단은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남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자신의 감정을 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화나는 감정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법'과 '화내는 상대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이 필요하다.

'심리적 고수'의 감정 컨트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작은 것에도 수치심과 분노를 느껴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시킨다. 특히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더욱 그렇다. '자기에'를 지키기 위해 인간됨을 쓰며 반응하는 것이다. 반면에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남의 평가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아 자신의 감정도 잘 컨트롤한다. 사소한 일로 '자기에'가 상처받지 않아 인성을 높일 상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있고, 이들이 왜 화가 났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같이 화내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이들은 정보를 수집해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다. 싸움은 피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되짚는 '슬기로운 복수'가 가능한 것이다. 감정 컨트롤이 가능한 완벽한 '심리적 고수'가 되기 위해 '심리적 하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 기억하면 같이 육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Step 1 '육'하는 사람의 특징 파악하기

1 스스로 과대평가한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낸다. 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육하는 건데, 사실은 자신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 속상한 것이다.

2 방어기제를 발동한다

콤플렉스가 외부 요인에 의해 '자극' 받아 과하게 반응한 것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다. 과거의 상처가 원인인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결국 그도 성질 더러운 사람이다.

3 상대에게 기대한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잘해준 만큼 '결과'가 돌아오길 바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처받아 분노를 표출한다. 주로 '자기에'가 잘못 형성된 사람의 특징으로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동시에 보인다.

4 부정적 감정 해소하기

상대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것이다. 주로 가까운 사이거나 자신보다 아래 혹은 착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감정을 많이 드러낸다. 가장 나쁜 습관이자 치졸함의 끝판왕이다.

5 자신의 요구를 위해 분노하기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큰 사람이다. 작은 일로 꼬투리 잡아 버럭 화를 내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



상대방이 계속 화내고 있다면 아마 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 없다. 특징을 알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Step 2 최고의 복수는 '무시'하기

가장 좋은 복수는 '무시하기'다. 그러나 절대 쉽지 않다. 감정이 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경 끄기 기술이다. 꼭 반응을 해야 할 경우라면, 몇 시간이라도 지난 후 대꾸하는 것을 추천한다. '심리적 하수'랑 말싸움하기 싫어 참는다!'라는 마음을 담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더 좋다. 표정은 '독한 말'처럼 증거를 남기지 않지만, '독한 말'보다 더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다.

Step 3 '6초' 동안 기다리기

육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조절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화끈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오랜 시간 쌓인 인연이 물거품 되는 경험을 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받으면 이를 먼저 편도체에 전달한다. 편도체는 '본능적 뇌'로 본능이나 정서·행동을 지배하는 곳이다. 만약 상대방과 갈등 상황에 놓였고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감정이 상하고 혈압이 오르면 표정이 경직되는데 3초면 충분할 것이다. 또한 3초는 상대에게 심한 욕설, 주먹을 올린다

든지 뺨을 후려치는 것까지 모두 가능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는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행동이다.

그렇다면 자극을 편도체에서 '이성적 뇌'인 대뇌피질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생각과 언어를 지배하는 대뇌피질로 가는 것도 단 3초다. 누군가 자신을 자극하더라도 딱 6초만 참고 견디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과 이성이 조율되는 그 찰나의 시간을 견디면 '세 치 혀가 사람 잡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참지 못하면 본능적 뇌가 시키는 대로 배설해 버린 감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감정이 휘몰아치는 6초는 생각보다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6초 동안 멈추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눈을 감고 굽은 어깨와 허리를 곧게 펴자. 그리고 3초 동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살짝 입을 벌려 아랫배가 등허리에 붙을 때까지 내뱉는다는 기본으로 길게 숨을 내쉴다. 아마 다들 한번쯤은 해봤을 '복식호흡'이다. 이렇게 단순한 호흡법이 자율신경을 균형 있게 조절해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감정이 격정적이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호흡을 다섯 번만 반복해 보자. 놀라울 만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관계를 살리는 시간 6초'로 슬기롭게 화를 극복하고 차분한 대화를 이어나가 보자.



〈킹덤〉 김은희 작가 인터뷰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좀비'의 탄생

피플인사이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극 전개 속도가 빠르고 전 시즌의 '떡밥'을 잘 회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즌1의 성공에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김은희 작가는 부담을 훌륭한 결과물로 만들었다. 한국판 좀비물을 글로벌 트렌드로 만들고 동시에 한국의 멋과 문화, 전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와의 인터뷰는 3월 20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글=김지현 <일간스포츠> 기자 / 사진=달라이트, 넷플릭스

우연이 현 코로나 사태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킹덤〉 시리즈는 2011년부터 기획된 작품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백두대간으로 자연스럽게 장벽이 형성되었다. 지도를 보면서 단순히 경상도를 배경으로 작품을 시작한 것이다. 작품은 창작자의 자유로운 상상이었을 뿐이다. 코로나 사태에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극 중 '봄이 오면 무사히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대사처럼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됐으면 좋겠다.

'K좀비'라는 용어가 생겼다.

그렇게 말해주는 건 작가에게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다. 〈킹덤〉 속 좀비는 계속해서 슬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역병은 왕실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배고픔에 시달리는 슬픈 좀비를 표현해 보고 싶었다.

권력에 대한 전복을 고려했나.

권력에 대한 전복은 생각하지 않았다. 단순히 '어떤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일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극 중 이창(주지훈)이 과연 무리해서라도 왕좌에 오르는 게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인지, 그 고민에서부터 극을 구상했다. 또한 2편에서는 천민이지만, 의녀라는 전문직을 가졌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서비(배두나)와 신분은 높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중전(김혜준). 두 사람의 대비도 보여주고 싶었다.

시즌3는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나. 제작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이창과 영신(김성규)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역병의 근원을 찾고 더는 역병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또 〈킹덤3〉에서는 '한'에 대해 더 얘기해 보고 싶다. 함께한 배우들이 너무 좋아서 이들과 스케줄이 잘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갈망했던 시리즈라서 꼭 이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시즌3에서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나.

그게 아마 시즌3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에서부터 배고픔으로 인해 많은

1,2 'K좀비' 열풍을 불러일으킨 〈킹덤2〉의 한 장면.

**김은희 작가**

〈싸인〉2011, 〈유령〉2012, 〈쓰리데이즈〉2014, 〈시그널〉2016 등을 통해 '장르물의 대가'이자 스타 작가로 떠오른 김은희 작가. 〈킹덤〉에 이어 〈킹덤2〉까지 극본을 집필했다. 〈킹덤〉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멋과 서양으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좀비가 조화롭게 접목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를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로 발돋움하게 했다.

사람이 북방으로 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구성될 것이다. 거기서 그 지역과 관련된 여러 민족이 나올 수 있고, 그들과 관련된 더 확장된 세계관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다.

시즌3에서 전지현의 역할은? 다른 신작인 〈지리산〉에도 출연하는데 그가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

〈킹덤1〉과 〈킹덤2〉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함께 중심축을 담당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지현을 보면 '여전사' 같은 느낌이 들더라. 몸을 잘 쓴다. 몸을 예쁘게 쓰는 배우와 액션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는 통통 튀는 매력을 〈킹덤〉과 〈지리산〉 두 작품에서 모두 볼 수 있을 것 같다.

조חק주(류승룡)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나.

그가 '어떻게 죽는 게 가장 비참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낸 결론은 자신이 그리 집착했던 '해원조씨의 핏줄이자 본인 말한데 죽는 것'이었다. 그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캐릭터가 극중 죽었다. 이들의 죽음에 담긴 의도는?

극 중 죽은 인물들은 모두 원죄가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 생각했고 죽는 게 가장 걸맞다고 생각했다.

〈킹덤2〉에선 배두나·김혜준의 연기력 논란이 사라졌다.

나는 두 배우에 대해 믿음이 있었다. 게다가 배두나는 월드 스타고 얼굴로 말하는 연기자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보는 이들이 배두나가 사극과 어울리지 않거나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천민이라는 캐릭터 설정에서 '궁궐 말투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해석을 하는 등 노력했다. 그의 해석이 새롭다고 생각했다.

김혜준 배우는 감독과 내가 찾던 배우였다. 우리는 '정말 어린 느낌'이 드는 배우를 원했다. 그게 극을 더 비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킹덤1〉에서는 몸이 안 풀렸는지 대사 톤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다. 김혜준이 가진 마스크의 힘이 너무 좋아서 '시즌2'에서는 속된 말로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주지훈의 연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시간을 가지고 주지훈을 보니 왜 감독이 그를 캐스팅했는지 알겠더라. 진짜 영리한 배우다. 이 배우랑 일을 같이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만의 해석이 깊다. 덕분에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다.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배우였고 극에 대한 이해도도 좋았다. 예전에는 노는 것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는 배우더라. 그와 오래갔으면 한다.

한국의 멋이 〈킹덤1〉에 이어 시즌2에서도 많이 들어 나온다.

기획하면서 경북 상주, 부산 등 여러 곳을 가봤다. 우리나라 속 몰랐던 아름다움을 알았다. 한국적인 미, 건축이나 자연 등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다. 마지막에 지붕을 달리는 신 같은 경우는 지붕들로 연결된 궁궐들이 지도만 봐도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이 장면에 꼭 구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눈 질환’

건강칼럼 봄이 왔지만 반갑지 않은 요즘이다. 미세먼지·황사에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의 주범인 꽃가루 등으로 인해 눈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시름을 더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봄철이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눈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글= 권대익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봄철 눈 질환의 주범 ‘알레르기성 결막염’

결막은 눈의 흰자 바깥쪽에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이다. 결막은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다양한 미생물이 침범하기 쉽다. 감염·알레르기·콘택트렌즈·외상 등으로 인해 결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결막염이라고 한다. 결막염에 걸리면 이물감·눈곱·가려움증 등이 나타난다.

결막염은 크게 감염으로 인한 결막염(바이러스성 결막염, 세균성 결막염)과 과민반응에 의한 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 콘택트렌즈 유발 거대 유두 결막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4월부터 급증해 9월까지 꾸준히 발생하다가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줄어든다. 특히 꽃가루·미세먼지·황사·곰팡이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이 나타나는 봄철에 가장 기승을 부려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봄철 불청객의 주범’이라 부르기도 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이고, 눈에 투명한 분비물이 생긴다. 아데노 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바이러스성 결막염과 달리 전염되지 않는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 ▶아토피성 각결막염 ▶봄철 각결막염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꽃가루·먼지·동물성 항원 등에 의한 제1형(즉시형) 과민반응이다. 주로 양쪽 눈이 가렵고, 심하면 충혈되고 환자가 부어 오르는 결막부종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알레르기 병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다. 이때 코가 막히고 맑은 콧물이 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함께 동반되기도 한다.

아토피성 각결막염은 만성성 각결막염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동반돼 나타난다. 10대 후반에 시작해 30~50대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1년 내내 나타나는 눈꺼풀 염증은 특히 봄가을에 주로 악화되는데, 심하면 각막에 반흔을 일으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봄철 각결막염은 10세 이전에 주로 발병해 기운이 올라가고 건조한 봄철에 심해진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호전되는 특징을 보인다. 봄철 각결막염은 윗 눈꺼풀 결막에 특징적인 거대 유두(乳頭·Optic disk)가 자갈 모양으로 관찰된다. 심하면 각막의 상피가 벗겨지는 각막 궤양이 되기도 한다.

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유행성 각결막염’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유행성 각결막염은 습도가 높아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리는데, 인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욱 쉽게 걸린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일주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다. 발병하면 눈이 충혈되며 돌이 구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눈물이 나며 눈 주위에 통증이 생긴다. 눈꺼풀과 눈 흰자위가 붓고 결막 아래로 피가 나기도 한다. 어린이의

경우 귀 앞쪽의 임파선이 부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열이 나거나 목이 붓기도 하며 설사를 하기도 한다. 증상이 3~4주 정도 지속되며 각막으로 염증이 퍼지면 각막 상피가 벗겨지면서 심한 통증으로 눈을 뜰 수 없게 된다. 환자의 절반 정도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기도 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시력을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

치료는 인공눈물과 항생제,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사용해 통증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치료용 콘택트렌즈·가성막 제거술 등을 시행하기도 하며 얼음찜질 등으로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다. 2~4주 정도는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증상이 시작된 후 10~14일 정도까지 특히 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 씻기, 수건 따로 쓰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눈병이 많은 여름철에는 깨끗하게 소독되지 않은 물수건이나 수영장 등에서도 옮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계절 내내 발생하는 ‘안구건조증’

눈물은 눈에 침입한 균을 죽이고 혈관이 없는 각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눈물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양이 줄거나 질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이상을 안구건조증이라고 한다.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건조한 느낌이 들고 화끈거리며, 충혈되거나 흐릿하게 보인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 컴퓨터·스마트폰 등 영상 단말기의 잦은 사용과 미세먼지 등을 꼽는다. 안구건조증은 한 번 앓으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수시로 인공눈물을 넣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마사지하는 등 관리가 중요하다.

안구건조증 증상이 아주 심해 하루 4번 이상 인공눈물을 넣어야 한다면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인공눈물을 쓰는 것이 좋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한 안약은 인공눈물 용도로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습관적으로 쓰면 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구연 건안대 의대 김안과병원 교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지만 눈은 마스크로 가릴 수 없으므로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 착용하기, 눈 비비지 않기, 인공눈물 점안 등으로 눈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눈 건강 지키는 Tip

충혈제거제는 장기간 사용 금지

충혈제거제를 오래 쓰면 혈관수축제의 반동 작용으로 눈이 더 충혈될 수 있다. 일부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의 경우 백내장·녹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식염수 아닌 인공눈물이 효과적

눈에 이물감이 느껴질 때는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야 한다. 반면에 식염수는 약이 아닐뿐더러 항균 작용이 있는 눈물을 씻어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자

가렵다고 눈을 비비면 일시적으로 관찰은 것 같지만 곧 증상이 악화되고 결막 및 눈꺼풀이 부어올 수 있다. 가려움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제 안약 처방이나 냉찜질이 도움된다.

청결함이 기본

외출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평소 세안할 때 눈꺼풀 가장자리를 깨끗이 닦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법

인공눈물은 하루 6회 이하 사용

인공눈물은 눈물 점액질과 방부제로 만들어져 독성이 있기에 하루 6회 이상 넣으면 각막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콘택트렌즈를 쓰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혹은 심한 안구건조증을 앓거나, 하루 6회 이상 안약을 점안할 때에는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해야 한다. 1회용 인공눈물은 한 번 개봉하면 하루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

인공눈물을 넣을 땀 자극 최소화

손을 깨끗이 씻은 뒤 고개를 뒤로 젓히고 아래 눈꺼풀을 손으로 잡아 되도록 자극이 덜한 흰자위나 빨간 살 안쪽으로 점안한다. 안구나 눈썹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한두 방울을 넣은 후 눈을 감박이면 성분이 눈물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30초 정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다. 점안 횟수는 하루 4~5회가 적당하다.

도움말: 황제형 상계백병원 안과 교수



안구건조증 예방을 위한 7가지 생활습관

- 1 컴퓨터·스마트폰 장시간 하지 않기
- 2 적절히 휴식하기
- 3 실내 습도는 40~60% 유지하고 자주 환기하기
- 4 렌즈 사용 최소화하기
- 5 가렵거나 이물감 있을 때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기
- 6 눈 주변 청결하게 유지하기
- 7 피로 해소와 면역력이 좋은 비타민C 섭취하기

‘칼퇴근’을 부르는 완벽한 보고서 작성법

현대건설 편리미엄 일 잘하는 사람의 보고서에는 그들의 노하우가 있다. 우리 회사도 최근 민첩하고 유연한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제적인 보고 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핵심이 녹아 있는 간결한 보고서 작성법을 소개한다.

자료제공=윤영돈, 이병주 저 『보고서 마스터(가디언 출판사)』



장황하게 늘어지는 백 장의 보고서보다 강력하고 콤팩트한 한 장의 보고서가 효과적인 법. 보고서의 힘은 간결하게 정리된 언어에서 나온다. 복잡한 정보 더미를 버리고 알짜배기 정보를 추려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

Tip 1 비즈니스 글쓰기는 ‘팔하원칙(5W3H)’으로 쓰자

Why 글을 왜 써야 하는지 의도, 이유,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
Who 팔하원칙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고를 받는 사람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사람의 성향·역량·가치관 등으로 보고서가 좌우될 수 있다.

Who 원칙과 관련된 체크리스트

- 상대방의 성별은?(이성과감성의문제)
- 상대방은 일반인인가, 전문인인가?(용어 사용의 문제)
- 상대방은 호의적인가, 비호의적인가?(오탈자, 맞춤법 문제)
-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은?(효과와 리스크 문제)
- 상대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길 바라는가?(분량 문제)
- 상대방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가?(기대치 문제)

What 무엇을 위해 쓰는지, 보고의 주제와 내용과 관련된 원칙이다.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면 주제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고 내용의 깊어도 더 할 수 있다.

When 언제까지 쓰고 실행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작성한다. 단순한 데드라인보다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좋다.

Where 자료와 정보의 출처는 물론 보고의 위치 등을 고려한다. 실제로 보고 받는 장소가 보고 피드백에 많은 영향을 준다

는 실험 결과가 있다.
How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 기획을 추진하는 방법과 절차, 도구 등을 점검하는 원칙이다. 다만 처음부터 How에 집중하면 Who나 What의 의미를 간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How many 보고서의 분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How much 보고서 내용 안에는 비용을 산출해서 적는 것도 중요하다. 인건비, 조사비, 인쇄비, 기타 잡비 등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Tip 2 보고서 작성의 5가지 일반원칙을 기억하자

첫째 기본적인 보고서 형식을 준수한다. 한 장 보고서부터 이메일, SNS 보고서 등 보고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잘’ 작성된 보고서에는 ‘기본적인 것’이 무조건 들어 있다. 잘된 보고서를 보고 자신만의 보고서로 소화시켜 수준을 향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보고서의 콘텐츠가 명확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목적이 명확한 것이다.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설득 당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콘텐츠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문점이 없는 보고서로 작성한다. 읽을수록 의문점이 많다면 실패한 보고서다. 한 장이든 백 장이든 보고서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보고서를 가장 잘 작성하는 것으로 유명한 맥킨지는 보고서를 만들 때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작성하는 훈련을 한다. 그 내용과 답변을 준비해서 보고서에 담아 보자.

넷째 구체적인 실천 계획(Action Plan)을 쓴다. 보고서는 작성하는 자와 보고받는 자 모두의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한다. 장황한 기본 설명 대신, 핵심적인 계획을 적는 스킵이 필요하다.

다섯째 작성자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철저하게 보고 받는 자에 빙의돼 작성한다.

Tip 3 남다른 보고서 작성법 ‘킬러 콘텐츠’로 승부하자

킬러 콘텐츠란, 고객의 마음을 끌어들이 수 있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말한다. 보고서에서 킬러 콘텐츠는 ‘기획’에서 결정된다. 킬러 콘텐츠를 담은 보고서 작성하기에 앞서 3가지 사항을 점검하자.

첫째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어떤 보고서든 누구에게 건네지고, 누가 검토하며,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상대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가? 보고서의 속도가 중요한 까닭은 자칫 꾸물거리다가 문서의 백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는 시대에 발맞춰 정확하고 가장 최신 정보가 담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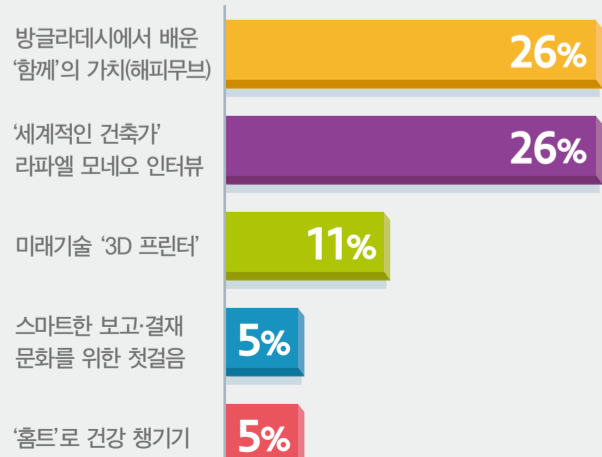
셋째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산만한 글은 작성한 사람도 헛갈릴 수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간결하게 잘 정리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독자 참여 코너

Be Together HYUNDAI E&C TODAY!

Q 384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가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 ‘독자 참여 코너’를 진행합니다.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4월호에서 읽고 싶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주세요
- 코로나19 예방법은 계속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외출이 꺼려지는 요즘이라, 사보신문에서라도 볼꽃 사진이 보고 싶어요
- 재테크 칼럼도 사보에서 읽고 싶네요
- 해외 현장 직원들의 일상이 궁금해요
- 사우들의 재택근무 이모저모

독자 의견 보내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조금씩 차가운 음료를 찾게 되는 계절입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 만큼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지만, 커피 한잔의 여유까지 잃은 순 없죠. 소중한 의견을 QR코드로 보내주세요. 추점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 1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혹은 네이버 앱 스마트렌즈 실행
 - 2 QR코드를 통해 '독자참여' 코너 접속
 - 3 재미난 질문에 응답하기 (꼼꼼한 답변은 당첨 확률 up!)
 - 4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참여 기간 ~4월 16일(목)까지(※ 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 5명)



마음의 안정을 주는 반려식물 들이기

꽃피는 춘삼월이 돌아왔지만, 코로나19로 맘 놓고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요즘. 50여 일 넘게 집에만 있기 지쳤을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눈까지 싱그러워지는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집 안으로 들여 심신의 안정을 취해보자. 글=강은비



큰 이파리가 매력적인 몬스테라

크고 길게 뻗은 이파리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눈이 싱그러운 몬스테라. 열대 밀림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잎사귀를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져 더욱 눈길이 간다.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몬스테라를 한 줄기만 구매해 수경재배로 키워보자. 줄기를 물에 꽂아 놓기만 해도 저절로 뿌리가 생길 정도로 환경 변화에 적응이 빠르다. 성장 속도도 남달라 온도와 환경만 맞으면 평균 6~7m까지 자랄 수 있다고.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식물에 속하지만 천남성과 식물로 섭취했을 때 위험한 '옥살산칼슘' 성분을 지녔으니 어린이·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비슷한 의미로 식물과 교감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려식물은 집 안의 미세먼지를 없애고 공기를 정화하며, 동물을 키우는 것에 비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 털 알레르기 반응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관리가 쉽고 초보자도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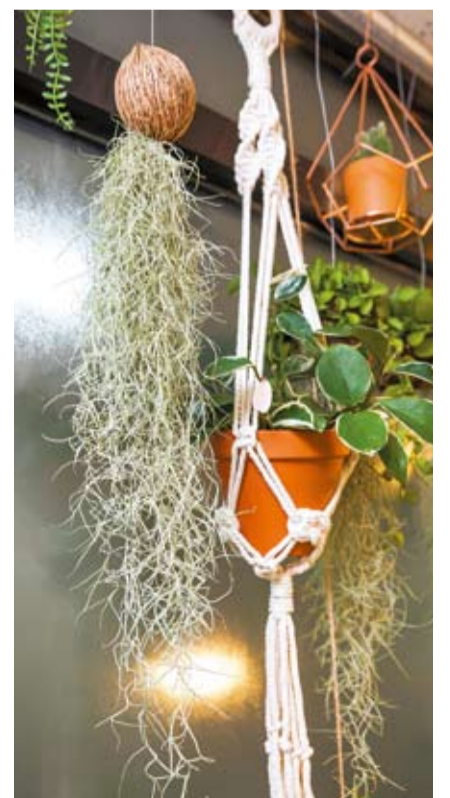
가습 능력이 뛰어난 아레카야자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인정한 최고의 공기 정화 식물 아레카야자. 하루 동안 1L의 수분을 내뿜어 천연 가습기라는 별명이 붙여졌을 정도. 집 안이 건조하다면 아레카야자를 여러 개 키워 습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가전제품이 많은 곳이나 새집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휘발성 물질을 제거해 쾌적한 집 안 환경을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다. 야자나무의 특성상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옆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 분무기를 이용해 잎에 물을 수시로 뿌려 주는 것은 추천하지만, 뿌리가 흡수하는 물은 과할 경우 누렇게 잎 마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쪽 흠까지 바짝 말랐을 때 물 주는 것을 기억하자.



행잉 플랜트 탈란드시아

다양한 품종이 있는 탈란드시아. 그 중 긴 수염 모양의 수염탈란과 파인애플을 닮은 이오 난사는 미세먼지 제거 식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들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미세먼지를 자양분으로 삼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흠이 키울 수 있어 매달아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집의 평수와 화분의 위치에 대한 제약이 적고, 인테리어 소품으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은 이삼일에 한 번 분무기로, 열흘에 한 번은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꺼내면 된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되, 직사광선에 약하니 주의하자.



둥둥한 원뿔형 잎이 귀여운 스투키

아이 손가락처럼 작고 통통한 잎부터 최대 1m까지 크기가 다양한 스투키. 생명력이 강한 다육식물로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된다. 스투키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새집에서 많이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및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하다. 불면증이 있다면 침실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식물과 다르게 저녁에 산소와 음이온을 배출하는데, 음이온 발생률이 30배나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자파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하니 집 구석구석에 두고 키워도 좋다.